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5주일

아버지, 성자께서 사랑의 신비와 인간의 존엄을 밝혀 주시니,
저희가 오로지 그리스도만 따르며, 성령으로 가득 차,
믿음과 실천으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정연숙 막달레나 가정
- 정한조,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평화신문 홍보

- 일시 : 7/19(일) 중심미사
- 담당 : 김영춘 베드로 신부님(평화신문 미주지사장)
- ☞ 평화방송, 평화신문 후원회 가입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주일학교 물놀이

- 일시 : 7/18(토) 오전 10시부터
- 장소 : Schlitterbahn Kansas City Waterpark
- 회비 : 본당지원
- * 간식은 교육부장님과 상의하여 자모회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친교 모임

- 일시 : 7/26(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기타

- 지난 주일, 주임신부님 축일 축하식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하신 전례부와 성가대, 음식 준비에 수고해 주신 총구역회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일(7/19) 중심미사 후, 평협 회의 있습니다.
- 매 주일 중심미사 후, 총구역회와 자매님들의 봉사로 공동체 애찬이 이루어집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더 크신 자애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 올해도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최, 광복절기념 소프트볼 대회(8/15, 토)가 열립니다. 작년의 우승에 힘입어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수한 베드로 ☎ (913) 707-8141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29	216	504/167	3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이원준 요한	차호섭 요셉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수한 베드로
	정채린 소피아	정예찬 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김정서 사비나 김아람 크리스티나
차주	박혜정 가타리나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차주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7/5	95명	400불	600불
이우석, 이영민, 정지현, 류기범 (총 4세대)			

☞ 감사헌금 : 김대연(3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선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례 때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뵈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청하며, 감사와 사랑의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림 묵상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돌씩 짝을 지어 파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가난을 키우고, 또 온전히 자신을 비울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가늠기 어려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12-15

<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

화 답 송 : 

주 님 저 희 에 게 자 비 를 보 이 소 서 또 한 저 희 에 게 구 원 을 주 소 서.

○ 주 하느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사오니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

○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께서 행복을 내려 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3-14<또는 1,3-10>

<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7-13

<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



“회개의 선포”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두 제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당신이 뽑으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자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오늘 들은 마르코 복음에서는 돌씩 짝지어 파견하시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릅니다. 그래도 마르코 복음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마태오와 루카에서는 지팡이마저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릅니다.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여행길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지팡이는 여행을 돕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들짐승이나 강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던 까닭에 길 떠나는 이들에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들 안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의 것만을 지닌 채 ‘회개의 선포’를 위해 서둘러 떠나야 한다는 어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장에 들어가 떠날 때까지 한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 역시 다른 것들에 마음이나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회개의 선포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급박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 파견에 앞서 ‘권한’을 줍니다.

하느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느님 교회에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 모습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도자나 봉사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할 때에 마음가짐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기 보다 하느님의 일에 가장 먼저 마음을 쓰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들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에페소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선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선의와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느님의 선의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된 은총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오로 사도의 표현에서 ‘우리’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으며,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습니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찬양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들이 이런 차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풍성한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자람 없이 넘치도록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은총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은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깨닫는 것이 부족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 하느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단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 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느님을 향할 수 있다면, 부족함 없는 은총 역시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제 4 편 가정 성화

제 1-1장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 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사도 16,31-33).

【주석】

주 예수를 믿으시오 :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다른 민족이든 믿는 이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주석 성경, 신약, 488).

집안 : “집안”은 가족과 하인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직업상 가깝거나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까지도 가리킨다(주석 성경, 신약, 483).

【설명】

▶ 한 집안에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믿음에 항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1티모 5,8).

【교회의 가르침】

▶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적 친교의 특수한 표출이고 실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 교회’라고 불릴 수도 있고 불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듯이, 가정이란 교회 안에서 독특한 중요성을 지닌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04항).

▶ 부부의 육체 결합으로 혼인의 두 가지 목적, 곧 부부 자신들의 선익과 생명의 전달이 실현된다. 혼인의 이 두 가지 의미나 가치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럴 경우, 반드시 부부의 정신생활이 변질될 것이며, 또한 혼인의 선익과 가정의 장래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남녀의 부부에는 이처럼 신의와 자녀 출산이라는 이중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63항).

【어록】

▶ 가정은 제 태양으로 빛나고 있으니 그것은 아내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들어보십시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좋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정숙한 아내는 더할 바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 주님의 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다. 아내의 미모는 가정의 보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아내와 어머니는 가정의 태양입니다(교황 비오 12세).

▶ 정결의 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들의 정결이고, 다른 하나는 과부의 정결이며, 셋째는 처녀들의 정결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들을 배제하면서 어느 한 형태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규율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성 암브로시오).